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우울
: 분노조절능력과 부정적 자아개념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The Anxiety-Depression According to Children's Ordinary Stress
: Focused on Exploring the Mediation Variable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시간강사 김 진 경*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Lecturer : Kim, Jin-Ky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o find out mediating variable between ordinary stress and anxiety-depression. The subjects were 2,844 4th grade elementary school in Korea. The instruments used were questionnaires about anxiety-depression, ordinary stress, anger control ability and negative self-concept.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regression.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 appearance-, possession-related stress, anger control ability, negative self-concept and anxiety-depression according to sex.

(2) Parent-, schoolwork-, peer-, appearance-related stress and anger control 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nxiety-depression. The principal finding was that anger control ability had mediating role between ordinary stress(schoolwork-, peer-, appearance-related stress) and anxiety-depression in male, one side parent-related stress and anxiety-depression in female.

(3) Parent-, schoolwork-, peer-, appearance-related stress and negative self-concep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nxiety-depression. The principal finding was that negative self-concept had mediating role between ordinary stress(parent-, schoolwork-, peer-, appearance-, possession-related stress) and anxiety-depression in male, one side parent-, peer-related stress and anxiety-depression in female.

▲주요어(Key Words) :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 일상적 스트레스(ordinary stress), 분노조절능력(anger control ability), 부정적 자아개념(negative self-concept)

Ⅰ. 서 론

최근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해 아동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해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전통적 가족 문화의 붕괴와 과중한 학업부담, 왕따, 학교폭력, 약물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등의 유해한 환경으로 인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남윤주・이숙, 2008; Essau et al., 2002). 정신과를 찾는 사람 중에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가 외현적 행동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내면적 문제가 더 많으며 그 중 불안과 우울이 가장 대표적인 정서장애라 할 수 있다(한지현・이진숙, 2007; Anthony, 1987; Crick, & Grotpeter, 1995). 아동기 불안우울은 임상집단 뿐 아니라 정상집단에게서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Rutter는

* 주 저 자 : 김진경 (E-mail : holyjin77@hanmail.net)

10, 11세 정상 아동 중 13%가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을 보였고, 우울한 아동을 14, 15세경에 재평가한 결과 40%가 불안과 우울의 느낌을, 20%가 자기멸시를, 7~8%가 자살충동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장애 발생률은 어른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4명 중 1명이 우울을 경험하고 10명 중 1명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박안나・김춘경, 2003).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2005)가 6~17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7.5%의 소아청소년들이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부모들은 단 2%만이 자녀가 우울증이 있다고 응답해 많은 부모가 자녀의 우울증상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남윤주・이숙, 2008). 이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증상의 경우 성인과 달리 사춘기 증상과 비슷하거나 의사표현을 잘하지 않아 상당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우울은 가족관계, 교우관계 및 학업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반영하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아동기의 경우, 우울과 불안이 하나의 단일한 증후군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근거로 우울과 불안의 공존률이 4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우울과 불안을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측정치들 간에 상관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최영희 등, 2002). 또한 개인의 기분이나 자아개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넓은 의미의 부정적 정서라는 공통영역이 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Axelson & Birmaher,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불안우울을 부정적 정서 중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아동들의 불안우울 증세가 심각해지면 학업성적 저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약물복용, 자살시도 등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초래하고 정신과 신체의 바람직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slow, 1983; Seligman et al., 1984).

불안우울은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적응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한상철・이수연, 2003; Cole et al., 1997; Kandel et al., 1991). 식욕감퇴, 야뇨증, 말더듬기, 근육경력 등의 신체적 반응과 불안, 신경질, 좌절, 우울, 무기력 등의 정서적 반응은 아동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주로 보이는 증상이다. 특히 불안우울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정서경험으로(임양화, 오경자, 1989), 어린 아동의 경우 우울이 일상 생활 스트레스와 특히 더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다(배주미, 2000; Nolen-Hoeksema et al., 1992).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uBios와 그 동료(1992)들이 2년간 청소년 초기 아동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 주요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모두가 2년 후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해한다고 보고되었다(김경연, 1996; 신은영・김경연, 1996; 신재은, 1999; 이미리, 1995; Essau et al., 2002).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는 성인기에 겪는 현상으로만 여겨졌으나, 오늘날에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 지속되는 현상으로, 심지어는 태아 및 유아들도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주장이 보편화되고 있다(Compas & Wagner, 1991). 특히, 아동기는 가정이나 이웃에 한정되었던 생활환경이 학교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며 규율적인 생활에 적응, 학업성취 압력 등으로 사회적 어려움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기이다. 아동 후기인 4~6학년은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시기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그 어느 시기보다 스트레스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Brenner(1984)는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무수한 긴장과 압박감, 스트레스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동의 스트레스 종류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스트레스는 적절히 경험하면 삶의 원동력이나 활력을 주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체・정신적으로 해로움을 가져온다(Compas, 1987). 아동기 때는 스트레스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는 주변과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아의 기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해서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레스 요인은 성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비슷한 반면, 아직 주변 성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아동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므로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 같은 심각한 생활 사건보다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신체적 증후를 예측하는데 더 설명력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민하영・유안진, 2000), 아동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일상적 스트레스란 교통체증이나 물건의 분실, 부모님께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며 꾸중 듣는 것, 병원에 가는 것, 친구가 놀리는 것 등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일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몇 개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 복합적인 상승효과를 나타내며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위협할 수 있다(Lazarus & Cohen, 1977; Lazarus & Delongis, 1983). 이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부모는 생후 초기부터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하위유형으로 부모관련 스트레스(우희정, 1997)를 들 수 있다. 부모와의 좋은 관계와 빈번한 의사소통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대처를 강화하고, 아동들은 부모의

질책이나 큰 기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과도한 학구열로 인해서 중·고등학생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초등학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학업성취와 정신장애 간에 유의한 상관이 밝혀진 연구에서도 제시하듯이, 학업성적에 의해서 약 2/3의 정신건강 증후를 예언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학습에 순기능을 할 수 있으나 과다한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학습을 저해한다고 했다(Dubow & Tisak, 1989). 또한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또래괴롭힘, 따돌림 등을 꼽고 있듯이(정영숙·정승희, 1996), 친구관련 스트레스도 아동기 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Compas et al., 2001). 또한 아동기로 갈수록 신체적 변화, 외모 등에 관심을 보이며 외모로 인한 만족도가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김진경·한유진, 2008) 외모관련 스트레스도 아동들이 많이 경험하는 유형이다. 또한 물질에 대한 소유여부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김진경·한유진, 2008), 소유관련 스트레스도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에 대해 아동이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스트레스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스트레스와 아동의 적응 간 상관관계는 별로 크지 않다(Compas et al., 2001). 개인의 심리·신체적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대처전략에 의해 완충되며, 스트레스 경험자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이 개인의 정서적 문제를 예측하는데 더 설명력이 있다(Dubow & Tisak, 1989). 스트레스는 우울증, 질병과 같은 부정적 경향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나, 동일한 사건에 직면해도 각 개인의 인지적 구조의 차이와 성격적 특성에 따라 우울과 같은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신은영·김경연, 1996; Kwon & Oei, 1992). 즉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긴장감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사건이 부정적 정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어떤 개인적 능력이나 자원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들(Werner & Smith, 1992)에 의하면 많은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성이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뒤 심리적 기능이 향상된 경우도 확인되었다(Anthony, 1987). 이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여 그 영향을 완충시키거나 적응을 도와주는 변인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자체가 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가 매개되어 개인의 적응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뿐 아니라 스트레스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개인적 중재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 해석하느냐, 또한 어떤 대처행동을 보이는가에 따라 스트레스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아동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는 스트레스 상황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동의 자아가치감이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적극적이며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행동을 보이며 학교 및 가정생활에서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한 연구들(문금순, 1993; 박연성·현은민, 2007; 임상희, 2005; 장휘숙, 2001)이 있다. 또한 자기지각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에 대해 문제지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기지각이 낮은 아동은 정서지향적이며 소극·회피적으로 대처한다는 연구들(김광웅, 2007; 성선진·이재신, 2000; 오선향, 2002; Harter et al., 1991)이 있다. 또한 자아개념과 우울 간에 부적상관을 보였는데(김현숙, 1992; 남윤주·이숙, 2008; 한순미, 2003; Cole et al., 1997), 이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은 아동일수록 우울에 취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아개념은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권석만, 2003). 즉,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며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 tm트레스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을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우울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예상하고 부정적 자아개념을 중재변인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적절치 못하면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고 신체적 질병이나 증상을 발생시킨다는 연구들(Compas, 1987; Yarcheski & Mahon, 198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에 대해 사용되는 대처방식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능동적이며 문제중심적인 적극적 대처행동은 우울과 부적상관(김인향, 1997; 민하영·유안진, 2000; 박경순, 1999; 박선영, 1993; 박정민, 2007; 이미진, 2005; 이진숙·한지현, 2006; Shields & Cicchetti, 1995)을, 소극적이며 회피적 대처행동은 우울과 정적상관(민하영·유안진, 2000; 신은영·김경연, 1996; 이미진, 2005; Compas et al., 1989; Windle & Windle, 1996)을 보였다. 스트레스 상황은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데, 이때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스트레스에 대해 사용되는 대처방식 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지 여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고 긍정적으로 정서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낮은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낮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높아진다는 경향이 있었다(김병옥・이진숙, 2008; 박성연・강지흔, 2005; 박혜경, 2002; 박혜경, 2002; 한유진, 2004; Essau et al., 2002; Thompson, 1994)). 정서조절 양식이 부적응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유지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서 불안우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조절능력이 중재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능력으로 분노조절능력이 중재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트레스는 개인의 지각이나 대처행동에 의해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완충시키거나 심화시키는 중재변수를 규명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우울에 있어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우울성향이 높은 경향을 보여왔다(김민정・도현심, 201; 정문자・김문정, 2004; 한미현, 1996; 한유진, 2004; 한지현・이진숙, 2007). 여아가 남아보다 우울에 더 취약한 이유로는 선천적, 환경적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남아에 비해 정서적 자극에 민감한 특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조절능력이 낮고, 과잉 및 공격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김병옥・이진숙, 2008; 한유진, 2004). 반면, 소극적 대처행동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들도 있다(박진아, 2001; 송달호, 2002; 이진숙・한지현, 2006; 한지현・이진숙, 2007; Endler & Parker, 1990; Crick, & Grotpeter, 1995; Windle & Windle, 1996).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과 부정적 자아개념, 불안우울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어떤 변인이 더욱 비중 있는 중재역할을 수행하는지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스트레스는 모든 연령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무조건 경험하지 않도록 상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신, 스트레스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부적응, 불안우울을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또한 불안우울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을 모색함으로써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전략을 구상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 부정적 자아개념, 불안우울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스트레스 하위유형인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물질소유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와 분노대처행동이 아동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하며, 분노조절능력은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과 아동의 불안우울간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연구문제 3> 스트레스 하위유형인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물질소유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이 아동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하며, 부정적 자아개념은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과 아동의 불안우울간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종단설계 자료로서 1차 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04~2007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반복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표집방법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지는 자기보고식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선정・구축된 2,844명이다. 초등학교 4학년은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의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며 인지능력의 변화가 큰 시기로, 문제해결능력 및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연구대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시기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기능을 증진시켜 생활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한 중요하다는 지적(Compas, 1987)에 따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문제 1-3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현상을 조명하는 것이고, 연구문제 4는 이들의 발달을 추적(4년간)한 결에 대한 것이다.

2. 연구도구

1) 일상적 스트레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설문지 문항 중 스트레스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

으로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23-1),2),3),4)번 문항이며,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23-5),6),7)번 문항이며,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23-8), 9), 10)번 문항이며, 외모관련 스트레스는 23-11), 12), 13)번 문항이며, 소유관련 스트레스는 23-14), 15), 16)번 문항이다. 리커트로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2) 분노조절능력

본 연구에서 분노조절능력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분노조절능력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설문지 문항 중 공격성과 정서적 조절감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로 구성된 공격성 문항인 22-1), 2), 3), 4), 5), 6)번 문항에 대해서 리코딩하여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쉽게 분노하고 공격하는 경우는 분노조절능력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화가 난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참거나 조절하는 정서적 조절감은 22-7), 8), 9)번 문항이다. 리코딩한 공격성 문항들과 정서적 조절감 문항들을 합산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된 분노조절능력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로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3) 부정적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 부정적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또는 주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지각하는 자아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Coopersmith(1968)는 삶에 대해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평가와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자아개념에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아개념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설문지 문항 중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과 주위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은 10-7),8)번 문항이며, 주위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 문항은 10-9),10)번 문항이다. 스스로 일탈적 자아낙인 문항들과 주위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 문항들을 합산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된 부정적 자아개념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로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4) 불안우울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설문지 문항 중 불안, 우울, 자살충동으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불안, 우울, 자살충동은 22-10), 11), 12), 13), 14), 15)번 문항이다. 자살충동 문항은 우울불안을 반영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판단되어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우울로 통일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로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program의 t-test와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 부정적 자아개념, 불안우울

먼저 스트레스, 부정적 자아개념, 분노조절능력, 불안우울에 대한 초등학교 4학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t-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표 1>참조).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하위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표 1>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 부정적 자아개념, 불안우울

		남 M(SD)	여 M(SD)	t
스트레스	부모관련	7.733(3.564)	7.449(3.423)	2.165*
	학업관련	6.675(3.141)	6.632(3.123)	.369
	친구관련	5.419(2.745)	5.295(2.596)	1.230
	외모관련	5.302(2.625)	6.009(2.807)	-6.929***
	소유관련	5.188(2.647)	4.936(2.446)	2.620**
분노조절능력		14.570(4.688)	13.589(4.317)	5.755***
부정적 자아개념		6.404(2.621)	5.782(2.163)	6.828***
불안우울		12.452(4.801)	12.874(5.090)	-2.254*

*p<.05, **p<.01, ***p<.001

보였는데, 부모, 학업, 친구, 소유관련 스트레스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평균이 더 높았던 반면, 외모관련 스트레스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았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부모, 외모, 소유관련 스트레스에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스트레스의 하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의 취약부분이 다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해서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분노조절능력은 여아보다 남아가 더욱 뛰어났다. 불안우울은 남아보다 여아가 더욱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1) 스트레스가 분노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 상관계수는 모두 0.6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으며 Durbin-Watson 검정 결과, 1.994(남), 1.934(여)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위험 또한 없었다. 스트레스가 분노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각각 부모관련 스트레스(β=-.08, p<.01, β=-.18, p<.001), 학업관련 스트레스(β=-.14, p<.001, β=-.07, p<.05), 친구관련 스트레스(β=-13, p<.001, β=-.14, p<.001), 소유관련 스트레스(β=-.16, p<.001, β=-.15, p<.001)가 분노조절능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모관련 스트레스만 분노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아의 경우에 분노조절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소유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부모관련 스트레스 순이였던 반면, 여아의 경우는 부모관련, 소유관련, 친구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2) 불안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 및 중재효과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변인들 간 상관계수가 모두 0.6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으며 Durbin-Watson검정결과, 1.924(남), 1.994(여)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위험 또한 없었다.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스트레스(β=.15, p<.001, β=.18, p<.001), 학업스트레스(β=.07, p<.05, β=.08, p<.05), 친구스트레스(β=.20, p<.001, β=.28, p<.001), 외모스트레스(β=.092, p<.01,

<표 2>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에 따른 분노조절능력

예측변인		분노조절능력					
		남			여		
		B	β	t	B	β	t
스트레스	부모관련	-.12	-.08	-2.62**	-.27	-.18	-5.06***
	학업관련	-.23	-.14	-4.35***	-.12	-.07	-2.06*
	친구관련	-.25	-.13	-4.20***	-.28	-.14	-4.46***
	외모관련	.02	.01	.31	.02	.01	.36
	소유관련	-.34	-.16	-5.51***	-.30	-.15	-4.64***
			R^2=.15 F=54.39***			R^2=.18 F=58.37***	

*p<.05, **p<.01, ***p<.001

<표 3>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예측변인		불안우울					
		남			여		
		B	β	t	B	β	t
스트레스	부모관련	.20	.15	4.83***	.27	.18	5.66***
	학업관련	.11	.07	2.24*	.13	.08	2.42*
	친구관련	.35	.20	6.69***	.56	.28	9.79***
	외모관련	.17	.09	3.14**	.18	.10	3.40**
	소유관련	.09	.05	1.66	-.10	-.05	-1.73
분노조절능력		-.10	-.12	-4.71***	-.20	-.20	-8.07***
			R^2=.24 F=76.92***			R^2=.36 F=121.77***	

*p<.05, **p<.01, ***p<.001

본문 내 <표 2>에 대한 코멘트가 없습니다.
확인요망

<표 4> 불안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의 중재효과 검증

투입	예측변인	남				여			
		R^2	$\triangle R^2$	F	β	R^2	$\triangle R^2$	F	β
1	부모관련(A)	.14	.14	243.17***	.25	.23	.23	373.33***	.06
2	분노조절(B)	.17	.03	153.82***	-.21***	.28	.05	253.71***	-.37***
3	A*B	.17	.00	102.59***	.09	.29	.01	171.50***	.30*
1	학업관련(A)	.12	.12	202.81***	.01	.19	.19	301.58***	.34*
2	분노조절(B)	.15	.03	131.40***	-.29***	.26	.07	229.70***	-.29***
3	A*B	.15	.00	89.39***	.28*	.26	.00	153.01***	.00
1	친구관련(A)	.17	.17	300.86***	.03	.26	.26	448.32***	.26
2	분노조절(B)	.19	.02	178.77***	-.29***	.32	.06	297.08***	-.31***
3	A*B	.20	.01	122.14***	.33**	.32	.00	198.53***	.15
1	외모관련(A)	.12	.12	206.92***	-.03	.15	.15	222.60***	.31*
2	분노조절(B)	.16	.04	143.03***	-.32***	.25	.10	208.00***	-.32***
3	A*B	.17	.01	97.99***	.33**	.25	.00	138.56***	-.01
1	소유관련(A)	.10	.10	169.82***	.04	.10	.10	144.39***	.18
2	분노조절(B)	.14	.04	118.13***	-.27***	.20	.10	160.09***	-.34***
3	A*B	.14	.00	79.70***	.21	.20	.00	107.19***	.02

*p<.05, **p<.01, ***p<.001

β=.10, p<.01)가 불안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지각하는 불안우울수준이 높았다. 반면 분노조절능력은 남아와 여아 모두 불안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β=-.12, p<.001, β=.20, p<.001). 분노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불안우울수준이 낮았다. 상대적 영향력은 남아의 경우, 친구관련, 부모관련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 외모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 순이였다. 여아의 경우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친구관련, 분노조절능력, 부모관련, 외모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 순이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과 불안우울간 관계에서 분노조절능력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절차는 스트레스를 먼저 투입하고 그 다음에 분노조절능력을 투입하였으며 그 후에 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먼저 남아의 경우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불안우울에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가 각각 분노조절능력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부모 스트레스만 투입된 모델은 불안우울점수의 14%를 설명해주고 부모스트레스에 분노조절능력까지 투입된 모델은 17%를 예측하였다. 소유스트레스 하나만 투입했을 때 불안우울의 10%를 예측하고 분노조절능력까지 첨가했을 때 14%를 예측하였다.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소유관련스트레스, 각각의 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의 상호작용항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데 반해, 분노조절능력만이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아동의 분노조절능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한편,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2%를 설명하고 학업관련 스트레스에 분노조절능력까지 투입할 경우 15%를 예측하였다. 친구관련 스트레스만 투입했을 때 17%를 설명하고 친구관련 스트레스에 분노조절능력까지 넣었을 때 19%를 설명하였으며, 상호작용항까지 넣었을 때는 20%를 설명하였다. 또한 외모관련 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2%를 설명하고 분노조절능력까지 투입하였을 때는 16%를 설명하였으며, 상호작용항까지 투입하였 때는 17%를 설명해주었다.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는 불안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데 반해, 분노조절능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 각 유형과 분노조절능력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불안우울의 정도가 아동의 분노조절능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불안우울이 증가하지만 분노조절능력에 따라 불안우울의 정도가 달라짐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여아의 경우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불안우울에 부모관련 스트레스만이 분노조절능력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먼저 부모관련 스트레스 하나만 투입했을 때 불안우울의 23%를 설명해주고 분노조절능력까지 투입된 모델은 28%를 설명하였으며, 상호작용항까지 투입하였을 때는 29%를 설명하였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변수는 불안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데 반해, 분노조절능력과 부모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불안우울의 정도가 아동의

분노조절능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불안우울이 증가하지만 분노조절능력에 따라 불안우울의 증가하는 정도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학업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9% 예측하며 분노조절능력까지 투입될 경우에는 26% 예측하였다. 학업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은 불안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26%를 예측하고 분노조절능력까지 투입될 경우에는 32% 예측하였다. 친구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항은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데 반해, 분노조절능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외모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5%를 설명하고 분노조절능력까지 투입된 모델은 25%를 설명하였다. 외모관련 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은 불안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반면,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소유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0%를 설명하고 분노조절능력까지 투입된 모델은 20%를 예측하였다. 소유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항은 불안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분노조절능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3. 스트레스, 부정적 자아개념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1) 스트레스가 부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들이 부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변인들 간 상관계수가 모두 0.6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으며 Durbin-Watson 검정결과, 1.945(남), 1.925(여)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위험 또한 없었다. 스트레스가 부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부모관련 스트레스(β=.15, p<.001), 학업관련 스트레스(β=.07, p<.05), 친구관련 스트레스(β=.20, p<.001), 외모관련 스트레스(β=.09, p<.01), 소유관련 스트레스(β=.10, p<.001)가 모두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친구관련, 부모관련, 소유관련, 외모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여아의 경우 부모관련 스트레스(β=.18, p<.001), 친구관련 스트레스(β=.23, p<.001), 외모관련 스트레스(β=.07, p<.01)가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학업관련, 소유관련 스트레스는 여아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부모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 부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스트레스 하위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르지만,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2) 불안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상대적 영향력과 중재효과

스트레스, 부정적 자아개념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각 변인들 간 상관계수가 모두 0.6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으며 Durbin-Watson검정결과, 1.958(남), 1.951(여)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위험 또한 없었다.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과 부정적 자아개념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관련 스트레스(β=.13, p<.001, β=.17, p<.001), 학업관련 스트레스(β=.07, p<.05, β=.10, p<.01), 친구관련 스트레스(β=.16, p<.001, β=.26, p<.001), 외모관련 스트레스(β=.07, p<.05, β=.08, p<.01)가 불안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소유관련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부정적 자아개념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불안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β=.26, p<.001, β=.26, p<.001). 상대적 영향력은 남아의 경우, 부정적 자아개념, 친구관련, 부모관련, 학업 및 외모관련 스트레스 순이였다. 여아의 경우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부정적 자아개념 및 친구관련 스트레스, 부모관련, 학업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 순이였다. 스트레스 하위유형에 따라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남아와 여아 모두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을 많이 느끼는

<표 5>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에 따른 부정적 자아개념

예측변인		부정적 자아개념					
		남			여		
		B	β	t	B	β	t
스트레스	부모관련	.11	.15	4.86***	.11	.18	4,89***
	학업관련	.06	.07	2.20*	-.02	-.02	-.65
	친구관련	.19	.20	6.89***	.19	.23	6.94***
	외모관련	.09	.09	2.91**	.05	.07	1.99*
	소유관련	.10	.10	3.60***	.02	.03	.84
			R^2=.217 F=84.36***			R^2=.15 F=47.37***	

*p<.05, **p<.01, ***p<.001

<표 6>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에 따른 불안우울

예측변인		불안우울					
		남			여		
		B	β	t	B	β	t
스트레스	부모관련	.17	.13	4.28***	.25	.17	5.42***
	학업관련	.10	.07	2.28*	.16	.10	3.16**
	친구관련	.28	.16	5.52***	.51	.26	9.04***
	외모관련	.13	.07	2.47*	.15	.08	2.87**
	소유관련	.06	.03	1.18	-.05	-.03	-.90
부정적 자아개념		.47	.26	10.31***	.60	.26	10.73***
			R^2=.28 F=96.11***			R^2=.39 F=136.42***	

*p<.05, **p<.01, ***p<.001

<표 7> 불안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중재효과 검증

투입	예측변인	남				여			
		R^2	△R^2	F	β	R^2	△R^2	F	β
1	부모관련(A)	.14	.14	252.01***	.40***	.23	.23	383.52***	.54***
2	부정적 자아개념(B)	.24	.10	233.19***	.46***	.32	.09	300.86***	.46***
3	A*B	.24	.00	158.12***	-.23*	.32	.00	204.10***	-.26**
1	학업관련(A)	.12	.12	206.07***	.43***	.19	.19	310.19	.45***
2	부정적 자아개념(B)	.23	.11	219.85***	.53***	.31	.12	284.74***	.43***
3	A*B	.23	.00	151.55***	-.33**	.31	.00	190.93***	-.15
1	친구관련(A)	.17	.17	303.39***	.46***	.26	.26	458.20***	.63***
2	부정적 자아개념(B)	.25	.08	247.27***	.45***	.34	.08	331.76***	.48***
3	A*B	.25	.00	168.96***	-.27**	.35	.01	228.19***	-.35***
1	외모관련(A)	.12	.12	209.37***	.40***	.15	.15	225.27***	.30***
2	부정적 자아개념(B)	.23	.11	220.71***	.48***	.27	.12	238.79***	.37***
3	A*B	.23	.00	150.62***	-.26**	.27	.00	159.08***	-.01
1	소유관련(A)	.10	.10	167.11***	.38***	.10	.10	146.61***	.36***
2	부정적 자아개념(B)	.22	.12	205.14***	.51***	.24	.14	204.20***	.48***
3	A*B	.22	.00	141.39***	-.28**	.24	.00	137.70***	-.18

*p<.05, **p<.01, ***p<.001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우울이 부정적 자아개념에 의해 중재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스트레스 각각에 대하여 부정적 자아개념과의 상호작용항을 설정하여, 스트레스, 부정적 자아개념, 상호작용항 순으로 투입하였다. 먼저 남아의 경우, 불안우울에 대한 부모스트레스(β=-.23, p<.05), 학업스트레스(β=-.33, p<.01), 친구스트레스(β=-.27, p<.01), 외모스트레스(β=-.26, p<.01), 소유스트레스(β=-.28, p<.01)가 각각 부정적 자아개념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부모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4%를 예측하며 부정적 자아개념은 10% 예측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2%를 설명하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11% 설명하였다. 또한 친구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7%를 설명하는 반면, 부정적 자아개념은 8%를 설명하였으며, 외모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2%를 설명하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11%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유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0%를 설명하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12%를 설명하다.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스트레스 모두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자아개념, 그리고 각각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상호작용항 모두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불안우울 수준이 증가하고,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아동의 불안우울이 증가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불안우울의 증가하는 정도가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을 증가시키지만 부정적 자아개념이 강할수록 아동이 느끼는 불안우울 수준은 더욱 심화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여아의 경우 <표 7>과 같이 불안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불안우울에 부모관련, 친구관련 스트레스만이 부정적 자아개념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먼저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23%를 설명해주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9%를 설명하였다. 또한 친구 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26%를 설명해주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8%를 설명해주었으며,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상호작용항은 1%를 예측하였다. 부모관련, 친구관련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은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작용항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부모,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또한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불안우울 수준이 증가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부모, 친구관련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우울의 정도가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부모,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불안우울을 증가시키지만 부정적 자아개념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불안우울의 증가 정도가 달라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9%를, 부정적 자아개념은 12%를 설명하였으며, 외모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5%를 설명하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12%를 설명하였다. 소유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0%를, 부정적 자아개념은 14%를 설명하였다. 학업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은 불안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각각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 외모, 소유관련 스트레스와 불안우울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아개념은 중재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우울간의 관계에서 분노조절능력과 부정적 자아개념이 중재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 부정적 자아개념, 불안우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을 통해 살펴보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가정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Brenner, 1984).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들이 아동을 대리자아로 인식하고 아동에게 지나친 관심을 쏟거나 과잉기대하는 경향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이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용수・박현주, 2008; 정영숙・정승희, 1996)와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교육열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업과 관련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 소유관련 스트레스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외모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여아보다 남아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남아가 부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며, 여아는 정서적,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반면, 남자는 물질에 대한 실제적, 도구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Harter et al., 1991)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여아가 남아보다 외모에 대해 민감하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는 능력, 여아에게는 외모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차이가 스트레스 하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남, 여아의 취약부분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해 남아가 여아보다 더 민감하다는 연구(Rutter, 1983), 여아가 더욱 취약하다는 연구(박진아, 2001; 송달호, 2002; Elder & Caspo, 1988),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분노조절능력은 여아보다 남아가 더욱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조절능력이 낮고, 과잉 및 공격행동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병옥・이진숙, 2008; 한유진, 2004)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아에게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성향으로 대처한다는 연구들(박진아, 2001; 송달호, 2002; 이진숙・한지현, 2006; 한지현・이진숙, 2007; Endler & Parker, 1990; Crick & Grotpeter, 1995; Windle & Windle, 1996)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불안 및 우울에 대해서 남아보다 여아가 더욱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이고, 남아는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Compas et al., 1989; Windle & Windle, 1996; Kaslow, 198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중재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들이 분노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외모관련 스트레스만 제외하고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조절능력이 낮아졌는데, 이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눈 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집단의 경우 대처전략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서중심전략을 사용했다는 선행연구(이미진, 2005; 이진숙・한지현, 2006; Ebata & Moos, 1991; Tolan et al.,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즉, 트레스 양과 정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그 상황에서 분노조절능력이 발휘되지 못함을 반영한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긴장을 주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역부족이다. 남아와 여아를 비교해보면, 남아의 경우에는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분노조절능력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남아는 자신의 부정

적 정서를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분노조절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아가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능력이 취약한 것을 반영하며,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한다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과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소유관련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조절능력이 낮을수록 불안우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우울성향은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일관된 부적관계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과(배주미, 2000; Nolen-Hoeksema et al., 1992; Petersen et al., 1991) 일치한다. 상대적 영향력은 남아와 여아 모두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불안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학령기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구의 영향은 크게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아동기 후기에 이르게 되면,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유리되어 친구와의 애착관계를 추구하는 발달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부모가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는 애착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Axelson & Birmaher, 2001). 친구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므로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아동의 불안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관련 스트레스도 두 번째로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의 정서적 유지관계 결여 및 부재 가 아동의 우울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성인들의 아동기를 조사한 결과, 아동기 양육과정에 있어서 정서적 친밀감의 박탈을 경험하고 부모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Wolchik et al., 2000). 또한 분노조절능력도 불안우울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는데, 분노를 순간 폭발하고 표현하기보다는 참고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울한 아동이 더욱 신체적인 공격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김병옥・이진숙, 2008; Asarnow et al., 1987)와, 정서중심의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아동이 문제중심의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한다는 연구들(박성연・강지흔, 2005; 박혜경, 2002; Ebata & Moos, 1991; Lazarus & Folkman, 1984; Tolan et al., 2002)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불안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각 유형과 분노조절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와 불안우울간의 관계에 대해 분노조절능력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불안우울의 정도가 분노조절능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학업, 친구, 외모관련 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불안우울이 증가하지만 분노조절능력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반면 여아의 경우는 불안우울에 부모관련 스트레스만이 분노조절능력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남아의 경우는 학업이나 친구, 외모관련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스트레스를 완충시켜서 불안우울을 느끼는 경로를 완충시켰던 반면, 여아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만 분노조절능력이 방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스트레스 하위 유형에 대한 분노조절능력의 중재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어떤 영역과 관련된 스트레스인지에 따라서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완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부적응을 예방하거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미리, 1995; 한상철, 2001; Compas et al., 2001; Lee & Larson, 1995),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여지는 비효율적인 대처방식은 오히려 질병에 대한 민감성을 높였다는 연구들(Compas, 1987; Yarcheski & Mahon, 1986)과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아동의 스트레스, 부정적 자아개념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먼저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이 부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문금순, 1993; 남윤주・이숙, 2008; Compas, 1987)와 맥을 같이 한다. 남아와 여아 모두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부정적 자아개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지지망 중에 부모보다는 또래의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는 선행연구(김진경・한유진, 2008)와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또래관계를 경험한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연구(정원주・윤종희, 1997)와 맥을 같이 한다. 아동기는 주변사람들의 평가와 인식에 민감하며, 이를 기초로 자신스스로에 대한 자아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부정적 자아개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친구관련 스트레스와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관련 스트레스도 남아와 여아 모두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외모에 민감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신체외형이 낮은 자존감과 연결될 수 있음(Compas et al., 2001)을 의미한다. 한편,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남아, 여아 모두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친구관계에서의 인기가 학업능력에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친구관련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들과 부정적 자아개념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

학업, 친구, 외모관련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이 불안우울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던 반면, 소유관련 스트레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남아와 여아 모두 부정적 자아개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친구관련, 부모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위축행동과 불안행동을 보이며(최영희 등, 2002),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껴서 행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Patterson et al., 1990)과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부정적 자아개념은 스트레스와 불안우울간의 관계를 중재하였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우울을 부정적 자아개념이 더욱 증폭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 환경에서 자아탄력성이나 높은 자존감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장경문, 2003; Werner & Smith, 1992), 또한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들(장경문, 2003)과 맥을 같이 한다.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아동들은 스트레스상황을 더욱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이로 인하 불안우울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Harter는 아동의 자기가치감은 정서적 상태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다. 자아취약적인 사람들은 외적 환경의 변화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응의 융통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환경적 상황 그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불안우울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스트레스 강도와 빈도가 모두 높아진다(Brenner, 1984; Compas et al., 2001). 또한 부정적 자아개념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자아개념이 낮아질 수 있다(김진경・한유진, 2008).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기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우울증의 발병률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발달하면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Kaslow, 1983; Rutter, 1991)를 고려해볼 때, 증폭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우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인 부정적 자아개념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신호임은 자명하다. 불안우울이 이후에 청소년 비행이나 성인기 우울증, 자살 등을 유도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아동기때 불안우울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분노조절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신을 상대와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이른 시기에 수정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변인은 아동의 행동이나 발달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적응의 위험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도와주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이나 개입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참 고 문 헌】

권석만(2003). **우울증.** 서울: 학지사.

김광웅(2007). 자아존중감 및 자기수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83-999.

김민정・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김병옥・이진숙(2008).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정서조절능력 및 행동문제: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052-1063.

김용수・박현주(2008).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분석. **아동교육. 17(4),** 63-76.

김인향(1997).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경・한유진(2008). 초기 및 중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95-105.

남윤주・이숙(2008). 아동이 지각한 애착과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2(2),** 1-16.

문금순(1993).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하영・유안진(2000).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학회지, 20(1),** 61-77.

박경순(1999).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우울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영(1993).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 평가와 대처행동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강지혼(2005). 남・여 아동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박안나・김춘경(2003). 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감소와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19(3),** 257-281.

박연성・현은민(2007).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83-94.

박정민(2007). **아동의 완벽주의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아(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혜경(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주미(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18개월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선진・이재선(200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2,** 51-89.

송달호(2002). **자아존중감, 통제소재, 실패내성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은영・김경연(1996). 아동 청소년의 우울수준에 있어서 관여, 내적통제감의 스트레스 완화효과. **대한가정학회지, 24(6),** 195-205.

신재은(199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선향(2002). **고등학생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희정(1997).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2),** 43-51.

윤유경(1990).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 양상의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리(1995). 고3 청소년의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 복합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89-98.

이미진(2005).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숙・한지현(2006). 시설보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951-959.

임상희(2005).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양화・오경자(1989). 우울한 아동의 귀인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1),** 69-76.

장경문(2003). **개인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휘숙(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 14(1),** 113-127.

정문자・김문정(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정영숙・정승희(1996).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행위 측정. **한국학교보건학회지, 9(2),** 185-195.

정원주・윤종희(1997). 아동기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그 증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261-273.

최영희・박영애・박인전・신민섭(2002).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경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03-214.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상철(2001).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1-21.

한상철・이수연(2003). 가출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행동에 대한 상담학적 개인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152-165.

한순미(2003). **아동의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및 우울간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유진(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5-88.

한지현・이진숙(2007).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우울의 관계. **아동학회지, 28(6),** 155-168,

Asarnow, J. R., Carlson, G. A., & Guthrie, D.(1987). Coping Strategies, self-perception,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1),* 361-366.

Anthony, E. J.(1987). Children at high risk for psychosis growing up successfully. In E. J. Anthony & B. J. Cohler(Eds.). *The invulnerable child*(pp. 147-184). N.Y.: Guilford Press.

Axelson, D. A. & Birmaher, B.(2001). Relation between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14,* 67-78.

Brenner, A.(1984). *Helping children cope sith stress.* Massachusetts: D. C. Health and Company Lexington.

Brody, L. R.(1995). Gender difference in emotional development: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53,* 102-149.

Cole, D. A., Truglio, R., & Peeke, L.(1997). Relation between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 A multipletrait multimethod multigroup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110-119.

Compas, B. E.(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Compas, B. E., Howell, D. C., & Phares, V.(1989). Risk factors for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young adolescence; A prospective analysis of adolescent and parental stress and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hgy, 57(6),* 732-740

Compas, B. E. & Wagner, B. M.(1991). Psycholosocial stress during adolescent: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Colten, M. E. & Gore, S.(Eds.). *Adolescent stress*(pp. 67-92). Aldine de Grayter N.Y.

Compas, B. E., Conner-Smith, J. K., Saltzman, H., Thomsen, A. H., & Wadsworth, M. E.(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blem,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logical Bulletin, 127,* 87-127.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 esteem.* Senfrancisco: W. H. Freeman.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ences. *Child Development, 63(3),* 542-556.

Dubow, E. 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Ebata, A. T. & Moos, R. H.(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ce. *Journal of Apl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Endler, N. S. & Parker, J. D. A.(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Essau, C. A., Conradt, J., & Peterman, F.(2002). Course and outcome of anxiety in adolesc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 16,* 67-81.

Harter, S., Donna, B., & Marold.(1991). A model of the determinants and mediational role of self-worthL Implication for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Jaine Strauss George R. Gorthals(Eds.). *The self: Interdisiciplinary approaches*(pp. 66-92). NY.

Kendel, D. B., Raveis, V. H., & Davies, M.(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f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995-998.

Kaslow, N. J.(1983). *Depression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uston.

Kwon, S. M. & Oei, T. P. S.(1992). Differential causal roles of dy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309-328.

Lazarus, R. S. & Cohen, J. B.(1977). *Environment stress.* Plenum, N.Y.

Lazarus, R. S. & Delongis, A.(1983).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in aging. *American Psychology, 38,* 245-254.

Lazarus, R. S. & Folkman, S.(1984). *A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 Co.

Lee, M. & Larson, R.(1995). Effectiveness if coping in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851-869.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P.(1992). Prediction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5 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05-422.

Petersen, A. C., Kennedy, R. E., & Sullivan, P.(1991). Coping with Adolescent. In Colten, M. E. & Gore, S.(Eds.). *Adolescent stress*(pp. 93-110). N.Y.

Patterson, C. J., Kupersmith, J. B., & Griesler, P. C.(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39.

Rutter. M.(1991). Age change in depression disorders: some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In J. Garber &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pp. 273-3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utter, M.(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323-356.

Seligman, M. E., Peterson, C., Kaslow, N. S., Tanenbaum, R. L., Alloy, L. B., & Abramson, L. Y.(1984).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3-238.

Shields, A. & Cicchetti, D.(199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regulation assessment battery: Reliability and validity among at-risk grade school children.* Poster presental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Tolan, P. H., Gorman-Smith, D., Henry, D., Chung, K., & Hunt, M.(2002). The relation of patterns of coping of Inner-city youth to psychopathology Symptom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4),* 423-449.

Thompson, R.(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Werner, E. E. & Smith, R. S.(1992). *Overcoming the odd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Windle, M. & Windle, R. C.(1996). Coping strategies, drinking motives, and stressful life events among middle adolescents : Association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with academic func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551-560.

Wolchik, S. A., Wilcox, K. L., Tein, J. Y., & Sandler, I. N.(2000). Maternal acceptance and consistency of discipline as buffers of divorce stressor on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1),* 87-95.

Yarcheski A. & Mahon, N. E.(1986). Perceived stress and symptom patterns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mediating variabl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9,* 289-297.

□ 접 수 일 : 2009년 01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0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3월 05일